



김현덕 경기첨단인쇄디자인센터 대표이사
2012년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장관상 수상 영예
“봉사는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쪼개서 하는 것”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인쇄인중에도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 어떤 인쇄인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쇄인이 있다. 바로 김현덕 경기첨단인쇄디자인센터 대표이사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2급 판정

김현덕 대표는 용인 와우정사 인근의 시골에서 4남2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그는 돌도 안돼 걸린 소아마비로 인해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가 복막염으로 서너달 입원했고, 아버지가 어머니 간호를 위해 집을 비운 동안, 그는 소아마비에 걸렸다. 형과 누나가 돌봐주었지만 그들 역시 너무 어린나 이였기에 막내 동생이 소아마비라는 큰 병에 걸린 줄 모르고 단순히 감기몸살이 걸린 줄로만 알았다. 아버지가 집에 잠깐 들렀는데, 그때서야 막내 아들이 큰 병에 걸린 줄 알게 됐다. 바로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 입원했지만 벌써 마비증상을 보이며 다리가 굳어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아픈 막내 아들을 등에 업고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다녔지만 다리는 좀처럼 낫지 않았다. 김현덕 대표는 “내가 태어났을 때 녀석하지는 않아도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 다리를 고치겠다고 전국을 다니면서 집이 기울기 시작했다. 가세가 기울 정도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애썼으나 큰 차도는 없었다”고 회고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1km나 되는 학교까지 부모님 등에 업혀 등교했다. 6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등교해 졸업식 때에는 개근상을 받기도 했다. 김현덕 대표는 “부모님의 노고를 다들 알고 있기에 졸업식 당일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초등학교 6년간 개근했던 것은 어찌보면 부모님이 개근상을 받으신 것이라 할 수 있다. 온 가족의 도움으로 남과 다를 바 없는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말했다.

김현덕 대표는 공부하는 것이 좋기도 하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몸이 아닌 머리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을 일찍 깨달아 학교에서는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아 공부하곤 했다. 그 덕분인지 성적은 언제나 상위권이어서 경희대학교 한방과에 지원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공계는 실습 등에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입학울 불허했다.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인문대인 충남대학교 법학과다. 김현덕 대표는 “대학교 3학년부 터 졸업할 때까지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합격하지는 못했다. 계속해서 고시공부를 하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1~2년 동안 취업문을 두드렸다.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을 보면 항상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취업문을 두드리고 나서야 내가 장애인이란 것을 크게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장애를 가지고 살았지만 대학 졸업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뒤진다고 생각한 것은 달리기 정도였다. 그런데 막상 취업문을 두드렸을 때 좌절했다”고 말했다.

계속된 취업실패에 가족들은 취업보다는 장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다. 그렇게 1987년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인근에서 조그만 문구점을 차리게 됐다.

김현덕 대표는 “대학가이다 보니 문구점에서 ‘복사 되냐’고 묻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복사기 2대를 들여 놓았다. 나중에는 문구 판매보다 복사 매출이 많아졌다. 나중에는 ‘인쇄 되냐’고 묻는 학생이 많아 인쇄도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인쇄와 인연을 맺게 된 김현덕 대표는 반드시 성공해서 장애인들이 홀대받지 않는 사업장을 차리겠다는 의지를 마음속 깊숙이 간직하게 됐다.

14개 소기업이 출자해 만든 경기첨단인쇄디자인센터



경기첨단인쇄디자인센터
경기미디어디자인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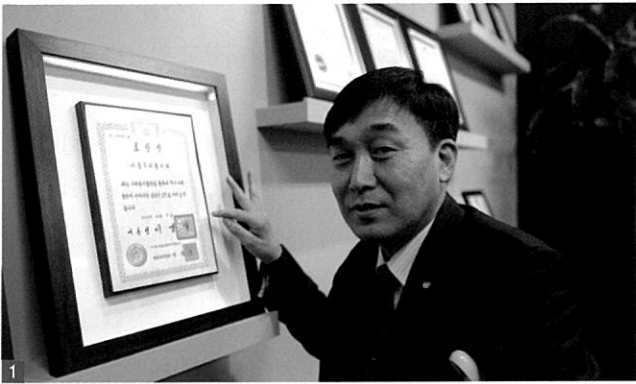
예전부터 수원 팔달구 교동의 인쇄거리에 밀집된 인쇄사들은 지난 2005년부터 시설 노후화로 인해 경영 위기를

맞았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인쇄사들은 첨단장비로 점차 진화해가고 있는 인쇄환경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역 550개의 인쇄사들이 담당해오던 일감들은 대부분 서울이나 파주출판단지로 옮겨갔으며, 영세 인쇄사들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됐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소규모의 인쇄업체들이 경쟁별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공동화 사업장을 만들었다.

김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첨단인쇄디자인센터는 경기도 인쇄문화협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지난 2008년 설립해 공동화 사업장을 만든 것이다. 특이한 점은 14개의 소기업들이 출자해 법인을 설립해 공동 운영한다는 점이다.

현재 센터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건물 한층 전체에 인쇄 및 디자인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3400㎡의 건물내에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01호는 실사출력 및 현수막, 402호는 사무국 및 연구소, 403호부터 405호까지는 기획 및 디자인, 406호는 라벨인쇄, 407호부터 410호까지는 디지털 및 경인쇄, 412호와 413호는 오프셋인쇄, 411호는 제책시설을 갖춰 기획, 디자인, 경인쇄, 디지털 및 오프셋인쇄, 실사출력, 제책 등 60억원 대의 시설이 온라인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다.

김현덕 대표는 “급변하는 경쟁사회 속에서 인쇄문화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품종의 다양성과 제작의 신속성, 고품질의 상품성, 저렴한 생산제작비용을 이뤄 내지 못하면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정면 돌파해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1. 지난해 12월 받은 대통령 표창 2. 곰두리봉사회에 차량봉사에 사용되는 자동차 3. 김현덕 대표가 센터에 도입한 디지털인쇄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 농어촌지역 이·미용봉사 후 촬영한 단체사진

경기첨단인쇄디자인센터를 설립했다”라며 “우리는 200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협동화 사업장에 걸맞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토의한 결과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결집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각자의 다른 사고를 공통의 이슈로 만들어낸 것이 지금 돌이켜봐도 참 대견하고 감동스럽다.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첨단인쇄디자인센터가 자리를 잡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 김 대표는 “경기첨단인쇄디자인센터 건립시 루머가 많았다. 센터를 건립할 때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기획부터 후가공까지 인쇄 전 공정이 포함돼야 하며,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각 분야당 2~3개 업체로 한정해야 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인쇄디자인센터가 완성되면 안그래도 어려운 수원지역의 인쇄시장을 덩핑으로 흐려놓을 것이라는 소문을 퍼트렸다. 하지만 우리는 가격이 아닌 서비스로 승부하고 있다. 오히려 제값을 받고 있어 일반 인쇄사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다”라고 말했다.

대학과 MOU 통해 산학공동연구소 개소

경기첨단인쇄디자인센터는 전문인력 수급 및 신기술 정보습득을 위해 수원여자대학을 비롯해 여러 기관들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공동연구소를 설립했다. 김현덕 대표는 “인쇄

사의 힘만으로 현실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산학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해 산학공동연구소의 설립 필요성을 수원여대에 피력하게 됐다. 그 결과 수원여대 산학협력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산학공동연구소를 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여대 산학공동연구소는 매주 수요일에 경기첨단인쇄디자인센터 실무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색채 기술 세미나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소규모 중소기업 형태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유대감은 물론 대기업 못지 않은 자긍심을 키우는 계기가 돼 산학협력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장애인 재활 위해 봉투인쇄 작업 지원

수원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경기도장애인인권연맹 감사를 맡고 있기도 한 김현덕 대표는 2000년 경기도인쇄문화협회 창립, 2008년 경기첨단인쇄디자인센터 설립 이후 본격적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나서게 된다.

김현덕 대표는 “수원시청의 위탁을 받아 설립한 수원엘림작업활동시설에는 25세부터 30세까지 자폐장애인 3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에게 어떤 일자리들을 만들어줄까 고민하다가 장애인들이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는 봉투인쇄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은 오전에는 치료를, 오후에

는 3~4시간 정도 대봉투, 소봉투 인쇄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역에 인쇄출판단지가 설립 되면 장애인 고용창출이 더욱 수월해질 것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가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곰두리봉사회 중앙회장으로 활동



장애인 봉사단체가 많이 없던 시절인 1988년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곰두리봉사회가 발족됐다.

곰두리봉사회는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출발했는데, 처음 이름은 '곰두리차량

봉사대'였다. 곰두리봉사회 창립멤버로 활동한 김현덕 대표는 "장애인 중에 차를 가진 사람들이 주축이 돼 수혜자가 아닌 봉사자가 돼보자, 장애인 선수들의 이동을 돕는 봉사를 해 보자라는 의견이 나와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 폭이 넓어져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봉사하는 단체가 됐다. 이동수단이 없어 외출을 못하거나 병원을 가지 못하는 이들의 발이 돼 주는가 하면, 최근에는 농어촌지역의 이·미용 봉사, 소독·방역 봉사 등으로 활동영역을 넓혔다. 김현덕 대표는 "곰두리봉사회는 처음에는 장애인들의 봉사단체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하는 봉사단체다. 그런데 회장이 장애인이다보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만 활동하는 봉사단체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곰두리봉사회 회원 중 비장애인이 90%에 이를 정도로 일반인의 참여가 활발하다. 현재 전국 16개 지부에서 46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대통령상·국무총리상·장관상 3관왕

김현덕 대표가 설립에 참여하고, 2010년부터 중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곰두리봉사회가 지난 2012년 창립 25주년을 맞았다.

김현덕 대표가 중앙회장을 맡은 이후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소독·방역봉사, 장애인 및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문화체험나들이, 농어촌 소독 방역 및 청소, 이·미용 봉사, 저소득층 난방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5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12 우수자원봉사자 시상식에서 곰두리봉사회가 대통령상과 장관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12월 20일에는 농수산식품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 시상식에서 김현덕 대표가 개인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봉사는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김현덕 대표는 하루 24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이 알차게 보내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생업인 인쇄출판업과 관련해 디자인회사인 아이엔지 대표, 경기첨단인쇄디자인센터 이사장, 경기미디어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경기도인쇄문화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에는 곰두리봉사회 중앙회장, 수원시장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경기도장애인인권연맹 감사, 수원엘림장애인작업활동시설 운영위원장, 경기도장애인인쇄작업장 시설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덕 대표는 "워낙 성격이 활발해 많은 사람을 만나는 데다가 한번 활동하면 뜨뜨미지근하게 발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일을 찾아서 열심히 활동한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많은 직함을 갖게 됐다. 지금은 경기첨단인쇄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다른 활동들은 1주일에 1~2번씩 회의를 참석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봉사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핑계처럼 느껴진다. 한정된 시간을 쪼개서 얼마나 가치 있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며 "봉사를 하다보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지만 봉사의 재미에 맞닿아보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게 된다. 봉사를 통해 나를 되돌아 보고, 내 삶을 반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저 앞만 보며 살다보니 지난해에는 문화부와 농림부의 장관상, 국무총리상, 대통령상까지 많은 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덩으로 얻게 됐다. 이러한 즐거움을 인쇄인들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프로필 Profile

- 1960년 출생
- 1987년 한양대학교 인근에서 복사집 운영
- 1988년 곰두리봉사회 창립멤버로 활동
- 1997년 아이엔지 설립
- 2000년 경기도인쇄문화협회 창립
- 2008년 경기첨단인쇄디자인센터 발족
- 2010년 경기도인쇄문화협회 회장 선임
- 2011년 지경부 장관상 수상
- 2012년 문화부·농림부 장관상,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수상

경기첨단인쇄디자인센터

주소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52번길 40 수원첨단벤처밸리 402호
 전화 | 031-8007-6005 팩스 | 031-8007-6008
 홈페이지 | www.gdnp.co.kr